

5월 가정의 달 엇갈린 표정

휴~시험공부 '한숨소리' 休~가족여행 '힐링소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학교별로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기방학'을 선포했지만 교육당국의 뜻과는 달리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자녀들의 중간 고사까지 끝난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연휴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 단기방학 직후에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 방학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도 빼지 않는 가정의 달 풍경이 됐다.

◇쉬려는 건지...어린이날까지 시험공부해야 하나=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기 중에 재량에 따라 휴교할 수 있는 단기방학이 생겨났지만 일부 학교가 단기방학 직후에 중간고사를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원망을 사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중학교(전체 90개교) 6개교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둘째 주 중간고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북성중·장덕중의 경우 휴일(3일)과 어린이날(5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인 4일을 휴일, 3~5일 쉬도록 했지만 방학 직후인 7일부터 중간고사를 실시한다. 매일 학원에 시달리는 아이가 어린이날까지 시험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으로 가정의 달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방

중간고사 앞둔 가정 '속상해' 시험 끝난 학생 깜짝방학 환영 맞벌이가정 자녀 맡기기 고심

학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동신중도 개교기념일(4일)을 쉬어 2~5일까지 4일간 쉬 수 있지만 7일 예정된 중간고사 때문에 가족 여행은 커녕, 어린이날에도 쉬지 못하고 시험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다.

이외 전남대 사범대부설중·문흥중(6일), 동신중·산정중(7일) 등 학생들이 어린이날 직후 치러지는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시험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방학 다음 주 치러지는 중간고사도 부담이 만만찮다고 학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중간고사를 앞둔 중학생 형·누나를 둔 초등학교 4학년 가정은 아예 장기 연휴 계획을 포기할 정도다. 중학교·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평소에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 어린이날이라도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4월말~5월 초 연휴에 앞서 중간고사를 끝내는 일과중, 지산중 등 70여개 중학교와 아예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14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은 편안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어 대비된다.

◇취지는 좋은데...맞벌이는 어쩌나=5

월 '자투리' 방학(4일 이상)을 실시하는 광주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8곳 등 18개교다.

5월 첫 주말인 2일부터 둘째 주 휴일인 10일까지 공휴일을 끼어 무려 9일간의 단기방학을 누리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은 '깜짝 방학'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상황이지만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줄 사람을 찾느라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직장 일 때문에 쉬 수 없을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맞벌이 학부모인 김모(34)씨는 "단기 방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휴가를 낼 상황이 안 돼 난감하다"고 했다.

김씨는 "방학인데 혼자 집에 남겨두거나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도 걱정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최대 5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방학)를 맞아 국내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과 사투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박숙영(여·38)씨는 단기 방학을 맞아 2박 3일 경주여행을 세우고 있다.

박씨는 "아이들 모두 이날 학교가 쉬어 공무원인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 처럼 여행을 가게 됐다"며 "여름, 겨울 방학 외에도 아이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진 대피 이렇게 해요" 2015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유치원생들이 지진상황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군부대 훈련 안전사고 방지책 '허점투성이'

계획없는 저수지 건너다 사고...구조 시스템도 허술

지난 28일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애초 예정된 침투 경로에서 벗어나 저수지로 이동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안방지를 충분히 수립하지 못한 군당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보병학교 소속 이모(26) 소위·고모(24) 소위는 지난 28일 침투 및 국지도발훈련에서 대항군 역할을 맡아하던 중 지동저수지를 가로질러 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훈련 전 수상이 아닌 육상으로 침투 경로를 정한 뒤 해당 교관에게 침투

예상경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에선 "군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돌발사고에 대비, 구조·구급 인력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구조조치

를 벌일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

군 당국의 안전한 수색 작업이 또다른 소중할 점은 목숨을 앗아갈 뻔 했다는 것이다. 또 사망자들이 예상 이동경로를 벗어나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당국이 훈련 전 교육생들에게 안전교육 및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현재 교육사령부 헌병대에서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 안전통제 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5월 황금연휴 비행기표 만석·리조트 예약 대부분 완료

전국 3200만명 대이동 예상

속박·여행업계 즐거운 비명

5월 첫째 주 황금 연휴기간(1~5일)을 맞는 항공, 숙박, 여행 업계는 모처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동절인 1일부터 주말과 휴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가족단위로 국내외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한 인파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29일 기준, 항공사의 경우 광주~제주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이번 황금 연휴뿐 아니라 5월 중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오전 출발 제주행 비행기의 예약률은 90%를 넘어

있다. 완도군 측은 주말과 휴일 여객선을 이용해 하루 1만여명의 관광객이 정산도를 찾은 것으로 보고, 주요 펜션이나 민박집의 경우 방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3200만명이 나들이 등을 위해 집을 떠나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승용차를 타고 서울~광주를 이동하는데 6시간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가 전국 5000가구를 상대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고향 방문이나 나들이 출발은 주말인 2일에 집중(32.8%)되고 도착은 휴일인 3일에 집중(31.9%)될 것으로 파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있었다. 완도군 측은 주말과 휴일 여객선을 이용해 하루 1만여명의 관광객이 정산도를 찾은 것으로 보고, 주요 펜션이나 민박집의 경우 방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3200만명이 나들이 등을 위해 집을 떠나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승용차를 타고 서울~광주를 이동하는데 6시간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가 전국 5000가구를 상대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고향 방문이나 나들이 출발은 주말인 2일에 집중(32.8%)되고 도착은 휴일인 3일에 집중(31.9%)될 것으로 파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5억짜리 장미로 참기름 짠 연구원들

'수뢰' 이재의 전 나노바이오연구원장 등 20명 적발

이재의(59) 전 전남생물산업연구원 산하 나노바이오연구원장이 제직 시절 과 학기자재 독점 납품을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은 25억짜리 연구용 장미를 명절 선물용 참기름 제조에 사용,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29일 연구비를 횡령, 다른 용도로 쓰고 기자재 납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재의(59·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전 원장 등 직원 14명, 납품업자 이모(44)씨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등 연구원 직원 12명은 4년

동안 납품업자로부터 전남산 참깨, 오동나무 상자 등 참기름 생산·포장을 위한 재료(6200만원 상당)를 제공받아 연구원 '초임계 추출기(25억원 상당)'를 이용해 참기름을 제작한 뒤 원장 명의로 명절 전후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또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연구원 등으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구원 김모(44) 팀장도 기자재 납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재의(59·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전 원장 등 직원 14명, 납품업자 이모(44)씨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등 연구원 직원 12명은 4년

"낫술 왜 마셔" 다른 손님에 주먹질

○...음식점에서 반주(飯酒)를 즐기던 생면부지 남성에다가 '낫술을 마시느냐'며 핀잔을 주고 주먹을 휘두른 전과 29범의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29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선모(52)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40분께 광산구 송정동의 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정모(55)씨에게 "낫술 마시냐"며 핀잔을 주고 주먹을 휘두르며 "낫술 마시느냐"며 고함지른 데 이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차례 때렸다는 것.

○...두 달 전에도 술 기운에 싸움을 했다가 합의한 뒤 겨우 풀려난 선씨는 이날도 혼자 식당에서 낫술을 마시고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자 술기운에 그만 화가 치솟았다"고 황설희수.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환 1kg 360,000원
- 600g 8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